

나주 혁신도시 기관 도서관 개방하고 문화공연

지역민 위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 풍성

전파진흥원 '카페 자연팍', 한전KDN 힐링 콘서트 개최 한전 농수축산물 박람회...전력거래소·aT 등 일자리 창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정책기조에 발맞춰 지역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문화공연을 개최하는 등 지역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지역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6일 지역 특성과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카페 자연팍'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카페 자연팍은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예비창업 교육 등을 돕기 위한 스타트업 카페다. 광주자연과학고 학교 기업이 직접 운영하면서 학생들 실습 지도를 병행하게 된다. 학교기업 자연팍은 카페 운영 및 학생들을 실습 지도할 실무자를 채용하기도 했다.

전파진흥원은 카페 운영을 위해 지난달 1층 로비 일부를 카페 맞춤형 인테리어로 시공해 학교기업 자연팍에 무상 임대했으며, 카페에 필요한 기자재 설치 등을 지원했다.

한전KDN도 오는 22일에도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하는 형태로 빛가람 힐링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에도 최현우 미술사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하는 '한전KDN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빛가람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다.

'빛가람 힐링 콘서트'는 직원들과 지역주민의 정서안정과 상호공감을 통해 조직 문화 조성 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행사다. 임직원과 가족들을 포함해 주변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연을 이어갈 계획이다.

동반성장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도 전력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복지 확대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게 한전의 복안이다.

한국전력거래소도 최근 '사회적 가치 종합관리 시스템 웹페이지'를 열고 올해 청년 일자리 창출 실적과 중장기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사회적 가치 추진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가치 추진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나갈 것이라는 게 전력거래소측의 설명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조직을 개편하고 'aT 사회적가치 자문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자문위원회는 일자리, 사회적책임경영, 운

리경영, 고객만족, 안전과 환경 분야에서 학계, 시민단체, 언론, 민간기업 등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등을 검토·자문하는 역할을 할 예정으로, 앞서 aT는 지난 3월 사회적가치 창출 업무를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조직으로 '사회가치창출부'를 신설한 바 있다.

사회적가치창출부도 이달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행력 제고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사람 중심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TP'를 비전으로 선정, 일자리 창출과 공정사회 구현, 인권존중, 윤리경영 고도화 등 6대 전략방향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국전력이 지역상생과 동반성장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전력그룹사 이천지역 농수축산물 박람회' 개막식에서 관계자들이 커팅행사를 하고 있다. <한국전력 제공>

전남도, 혁신도시 이전 기관 연계 시군 발전사업 발굴

21개 시군·16개 기관 참여 480억 규모 30개 사업 추진

전남도가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내는 지역발전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선 시·군과 480억원 규모의 30개 발굴 사업을 추진한다.

이전 21개 시·군과 16개 이전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올해 한국전력을 비롯해 입주기관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323건, 1조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투자한다. 빛가람혁신도시 최대 공공기관인 한전의 경우 에너지밸리 기업 유치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5600억원을 투자하고, 한국농어촌공사도 농업법인 4차 산업 첨단기술 도입지원 등 지역발전 사업예산으로 5400억원을 투입한다.

이처럼 16개 이전기관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발전 예산에 지역 요구사업과 무관한 자체 추진사업이 상당부분 포함돼 지역 발전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전공공기관과 협의해 시군 지역발전사업을 2019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21개 시·군은 내년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에 반영할 30개 480억원의 사업을 발굴했다.

영광군은 e-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전과 'e-모빌리티 컨벤션센터 건립' 공동 추진을 신청했고,

보성군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빛&섬머 페스티벌'을 한전과 연계 추진하겠다고 신청했다. 목포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개인정보 유·출 예방 교육'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운영주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은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이전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기여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시·군, 이전공공기관, 대학 등과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019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을 이전공공기관과 협의해 2019년 2월 말까지 확정,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aT, 첫 중국 유기인증 획득 '쌀스낵 수출 기념식'

레인보우 볼 등 14종 2000만원 상당 수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이 병호)는 지난 5일 나주시 소재 ㈜정담에서 '미래클 K-Food 쌀스낵 대(對)중국 수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출 기념식을 개최한 쌀스낵 제품은 한국산 쌀가공식품 최초로 중국 유기인증을 획득한 '레인보우 볼' 제품 5종을 비롯해 칩과 소프트바 등 총 14종의 제품이다. 2000만원 상당의 725박스가 수출되며 우리 쌀의 새로운 시장개척과 농가소득제고를 위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aT에서는 작년에 수출농식품 현지화 지원사업을 통해 곡성에서 생산된 유기농 쌀과 레인보우 볼 영유아 쌀스낵 5개 제품에 대해 쌀제품으로는 최초로 중국 유기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이후 미래클 K-Food 프로젝트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중국 상하이 소재

영유아식품 전문 바이어인 정화국제무역유한공사와 매칭해 중국 수출이 성사됐다.

이번에 수출되는 쌀스낵은 중국의 대표적인 소비시장인 강소성, 절강성 내 121개 영유아용품 전문점에 14개 품목이 한꺼번에 입점돼 각 매장별 신규 입점 이벤트를 진행했다.

중국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와 연계해 배너광고, 온라인 생방송, 검색어 노출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육아전문 웨챗(Wechat) 기업계정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중국 영유아 시장 공략에 나선다.

백진석 aT 부사장은 "국내산 유기농 쌀을 원료로 만든 영유아 쌀스낵처럼 한국 고유의 차별적 가치를 지닌 수출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해외시장에서 성공 품목으로 육성하는 것이 aT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 클 가능성이 높은 유망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국전력거래소 창립 이래 최대 규모 채용

신입 37명 등 총 86명

빛가람혁신도시 입주기업인 한국전력거래소가 창립 이래 최대 규모 채용에 나선다.

전력거래소는 6일 신입직 37명, 경력·전문직 14명, 공무직 25명 및 체험형 청년인턴 10명 등 86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중 신입직은 사무직 상경직군과 법정직군에 각 16명과 4명, 기술직은 전기직군 20명, IT직군 4명, 건축직군 1명, 기계직군 2명이다.

고졸수준(반일제) 2명도 선발한다. 경력·전문직은 발전설비 운영 1명, 소프트웨어 개발 2명, 정보보안 1명, 전력경제·전력계통 7명, 수요예측 2명, 기상·기후 1명 등을 뽑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선발하는 공무직은 사무보조(일반) 17명, 사무보조(비서) 4명, 운전원 4명이다.

4개월 근무 기간인 청년인턴은 10명 전원을 장애인 제한채용으로 선발한다.

청년인턴을 수료하면 향후 전력거래소 정규직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력거래소는 직무능력 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해 지원서 접수 시에 연령·출신학교·출신 지역 등을 쓰지 않도록 했다.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기시험, 면접전형 등 채용의 모든 과정을 외부 채용전문업체에 위탁해 진행하기로 했다.

9일부터 16일까지 지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지원자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5일부터 10회에 걸친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채용설명회 정보와 지원서 접수는 전력거래소 채용홈페이지(job.kpx.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